

대전디자인진흥원, 청년·기업 협업 성과 공유회 실시

8 이승우 기자 | ㉠ 승인 2026.01.10 16:48

광고·마케팅·디자인 분야 현장형 인재 양성 성과 확인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지난 9일 커먼즈필드 대전에서 '2025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열었다.(사진제공=디자인진흥원)

[충남일보 이승우 기자]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청년과 지역 기업이 함께 수행한 실무 프로젝트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지역 기반 일경험 지원사업의 성과를 점검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지난 9일 커먼즈필드 대전에서 '2025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청년 참여자들이 8주간 수행한 기업 연계형 실무 프로젝트의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 참여자와 참여기업 관계자, 멘토, 평가위원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은 이번 사업의 하반기 프로젝트형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지역 청년 52명을 대상으로 기업 연계형 실무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참여 청년들은 광고·마케팅과 디자인 분야의 실제 직무 과제를 중심으로 팀 단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기획부터 실행, 결과물 도출까지 전 과정을 경험했다.

광고·마케팅 직무 특화 프로그램은 대전관광공사와 대전관광협회와 협력해 '청년참여형 대전 로컬관광'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참여 청년들은 관광 콘텐츠 기획과 관광 코스 개발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과제를 수행했다.

디자인 직무 분야 일반 프로그램은 지역 기업이 제안한 브랜드 개발과 UX·UI 개선 등 실무 디자인 과제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총 13개 팀이 프로젝트 수행 과정과 주요 결과물을 발표했으며 결과물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 협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 각 1팀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지역 기반 청년 일경험 모델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직무 경험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디자인진흥원은 이번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청년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연계형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우 기자 prekain@naver.com